

역사의 현장에서 다진 예비 장교의 다짐

군사학과 2학년 임희정

일시: 2026년 9월 17일~9월 20일(3박 4일)

장소: 중국 대련·여순(여순감옥·관동법원 구지), 백두산 북파, 단동(압록강 유람선·단교)

참여: 군사학과 학장님과 교수진, 군사학과 2학년 학생들

2026년 9월 17일~9월 20일(3박 4일) 실시된 중국 해외 전사적지 및 안보 탐방은 예비 장교로서 저의 가치관과 진로 의식을 확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사진으로만 접했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밟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나라를 잃었던 아픔에서부터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는 살아 있는 안보교육의 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역사의 흔적은 국가안보의 소중함과 국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사명감을 더욱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역사를 체험하고 장교로서의 포부를 키울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탐방 첫날 방문한 여순감옥과 관동법원 구지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안중근 의사,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이 고난을 겪고 순국하신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벽돌과 좁은 감방, 비인간적인 탄압의 흔적을 마주하는 순간 숙연함과 함께 깊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한 지배의 현장을 둘러보며, 국가가 주권을 잃었을 때 국민이 겪는 비극이 얼마나 참혹한지 직시했습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뜻을 되새기며, 훗날 장교로 임관하여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가 얼마나 엄중한 책무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강한 국방력과 올바른 국가관이 주권과 자유를 지키는 토대라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열들의 희생 앞에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른 백두산 북파에서는 웅장한 자연과 천지의 장엄한 모습을 마주하며 우리 민족의 뿌리와 기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과정은 체력과 정신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장과 훈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며 임무를 완수하려면, 장교 스스로가 산처럼 든든하고 바위처럼 굳건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단동에서는 압록강 유람선에 올라 강 건너 신의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압록강 단교를 직접 걸었습니다. 한 줄기의 강을 사이에 두고 오갈 수 없는 현실은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총탄 자국과 끊어진 교각이 남아 있는 단교는 전쟁의 상흔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안보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이 현장에서 확고한 국가관과

냉철한 안보관,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3박 4일간의 탐방은 책상에서 배운 지식을 살아 있는 역사와 연결하고, 군사학과 학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장교로서의 포부를 키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은 다음 세대의 책무이며, 그 중심에 장차 국군 장교가 될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뜻깊은 현장교육을 가능하게 해 주신 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탐방의 모든 과정에서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군사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신뢰와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학업과 체력단련, 군사학 교육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졸업 후 임관하는 그날까지 지·덕·체를 겸비한 정예 장교로 성장하고, 조선대학교 군사학과의 이름에 걸맞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